

배움... 키움... 만들... 나눔... 전주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그램 발표

# 사람이 심고 꽃이 답하다

시, 문체부 공모 선정 따라... 주민·예술가 협업 통해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주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사업단 '인디'는 선미촌에서 노송동 마을주민, 청년 예술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람이 심고 꽃이 답하다'는 프로그

램 발표와 함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회를 가졌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추진단 '인디'는 총괄기획자인 장근범 작가와 풀결서사, 책방늘지, (재)전주문화재단이 공동추진 주체로 참여한다. 사업의 내용은 주민과 예술가의 협

업을 통해 마을 스스로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재생과 활성화가 가능한 마을로의 변화를 위한 ▲배우고(Learn) ▲키우고(Grow) ▲만들고(Make) ▲나눔(Share) 네가지의 프로그램이다.

또한, 5개의 주제인 인문, 가드닝, 창업, 예술, 마켓을 주민과 예술가와 전문가가 결합함으로써 추진단은 지속적인 문화적 도시재생의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민주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북지부 택배지회는 지난 14일 CJ대한통운 전북 전주완스타미널에서 집회를 열고 "열악하고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 전북 택배 노조 "전근대적 노동조건 개선을"

부분 파업 돌입 선언... CJ대한통운에 '탄압 중단' 등 요구

전북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북 택배지부는 완산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집회를 열고 "열악하고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노조는 "택배산업은 국민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가 됐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착취와 노조 탄압으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한국 택배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의 착취는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리점의 배송 수수료는 5~35%에 달해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

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매달 100만~25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리점 소장 마음대로 책정하고 있는 수수료가 얼마가 책정되는지 노동자들은 알지도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대리점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파업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 교섭과 정률 수수료 지급, 조합원 탄압 중단 등을 CJ대한통운에 요구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 '크레인 이용' 레저용 보트서 엔진 훔친 40대 검거

길거리에 세워둔 레저용 보트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엔진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경 군산시내 모 원룸 앞에 세워둔 레저용 보트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엔진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크레인을 이용해 엔진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체포했다. /강석훈 기자

## 주민들의 건강한 삶 위해

인후3동 주민센터, 수 한방병원과 어르신·이주여성 무료진료 협약

덕진구 인후3동 주민센터(동장 강세권)는 저소득어르신들과 이주여성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지난 13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후3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이번 무료진료는 수 한방병원(덕진구 안덕원로 378)이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과 이주여성을 추천받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진료를 통해 저소득 어르신 32명이 건강검진을 받게 됐으며 8명의 다문화 이주여성은 주간별로

나누어 진료를 받게 된다.

이번 무료진료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로 주치의처럼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연계망을 통해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 건강에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은 "함께하는 봉사가 효용적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며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동 주민들이 함께 하니 행복하고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북대병원, 일반인을 위한 갑상선 이야기 강좌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최근 병원 본관에서 '일반인을 위한 갑상선 이야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건강강좌에는 전북도내에서 활동하는 전문의들이 강사로 나서 갑상선암의 기본특징부터 원인과 진단 치료 방법까지 갑상선암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강의를 참석한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강좌는 △갑상선암이란(전북대병원 강상을 교수) △갑상선암의 진단 및 검진(예수병원 박영삼 교수) △갑상선암의 치료(원광대병원 최은정 교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 100여명의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일반인들의 갑상선 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됐다. /김영태 기자

서학동예술마을 현장지원센터 개소

## 예술의 힘, 주민 참여로

도시재생 뉴딜 본격화 2021년까지 사업 추진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서학동예술마을에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곳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광수 국회의원, 김창환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주민협의체 위원 및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국·도비 117억 원을 포함한 총 172억 원을 투입해 예술의 힘과 마을 주민의 참여 속에

활기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현장지원센터는 사업구역 내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것으로 고남수 현장지원센터장을 비롯한 6명이 상시 근무하며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끌게 된다.

이들은 향후 △마을기업 등 공동체 조직 운영에 대한 지원 △주민참여 공모사업 발굴 및 시행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화 △행복플러스센터 건립과 예술테마거리 조성 등 13개 미중대사업추진을 위한 행정과 주민 간 교류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사업시행 과정을 총괄·조정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송효철 기자

## 덕진구, 가정위탁 아동과 함께하는 뮤지컬 문화체험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지난 15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관내 가정위탁아동, 저소득가정아동 및 보호자 등 40여명과 함께 뮤지컬 '영웅'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공연에 관련한 정보 학생은 "역사에서 배운 것을 뮤지컬로 보면서 조국 독립을 위한 안중근 의사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함께 공연을 관람한 학부모 최모씨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일제식민지의 아픔을 느끼며 공연을 관람했고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나라사랑의 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 이탈리아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의 참석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다른 창의도시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에서 열린 '2019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참석해 다른 창의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유네스코 연례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현재 가입된 72개국 180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올해 회의는 '이상적인 도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시는 다른 창의도시들과 함께 △창의도시 분야별 협

력사업 개발 △향후 서브네트워크 활동 계획 수립 △2030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협력사업 개발을 위해 논의했다.

또한, 시는 이번 연례회의의 분야별 워크숍에서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전주비밀박물관 등 전주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행사를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들과 국제 통신과 협력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각 도시 발전의 상호 이익을 위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양해각서(MOA)도 체결했다. /송효철 기자

## '건물 앞 화분만 슬쩍' 심야 상습절도 40대 검거

심야를 틈 타 건물 앞에 놓인 화분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A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익산시내 상가의 건물을 돌면서 철쭉과 선인장 등 총 280만원 상당의 화분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화분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수차례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